

미리 보는 90년대 한국시의 新抒情

젊은 시인들의 합동시집 세권을 중심으로

장석주

시인 · 문학평론가

우리에게 80년대는 일종의 재앙과 같았다. 우리의 의식은 납득할 수 없는 폭력과 고통으로 찢겼고, 삶은 철저히 모독당했다. 재앙과 같았던 그 80년대의 현실-악몽 속에서 시의 시대가 꽃피어났다. 시의 시대라는 말이 미증유의 시적 융성기를 지칭하는 용어라면, 80년대가 시의 시대였다는 사실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80년대는 시의 양적 팽창이라는 현상을 넘어서서, 억압문화에 대한 다양한 방법적 응전이라는 일정한 가시적 성과를 보여줬다. 80년대 시인들에게 압도적인 현실의 불행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적어도 그들은 메스를 들이대고 절개해야 할 확실한 시대의 환부를 알고 있었고, 파괴해야 할 분명한 이상들과, 그리고 적들을 알고 있었다. 그것들은 숨김없이 드러나 있었고, 그들은 망설임 이유가 전혀 없었다.

80년대 전반의 시인들, 즉 이성복 · 최승호 · 황지우 · 박남철 등이 보여준 자학과 고통의 언어들로 이루어진 뿌리깊은 비관주의적 상상력은, 현실의 압도적인 불행 때문에 그 누구로부터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쉽게 유용한 것으로 공인될 수 있었다. 그 뒤를 잇는 환멸의 세대의 상상력의 대표적 주자들인 김영승 · 장정일 등에게도 행운은 계속되었다. 80년대 시인들의 과장된 절망, 비속한 언어, 산문적 요설, 표현의 해체, 위악적 제스처들은, 도저히 의미있는 살아남의 체계를 세울 수 없는 이 척박한 현실 속에서의 처절한 몸부림으로부터 나온 것, 따라서 그것은 누구에게나 비범하고 유용한 시적 대응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 이제 그 80년대는 지나가버렸다.

90년대적 상상력의 몇몇 징후들

새로운 90년대 시인들의 상상력은 어떤 상황논리 위에서 배태될 것인가? 그들은 80년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시대의 전위에서 서서, 어둠을 뚫고 다가오는 새벽을 예고하는 선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개체적 삶의 일상적 · 구체적 국면 속에 갇힌 범속하고 파편화된 진실에 천착하는 개별자의 상상력을 옹호할 것인가?

나는 80년대의 후반기에 나타난 기형도 · 송찬호의 절망의 내면화, 그리고 일그러진 자아를 보여주는 시편들에서 90년대의 한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중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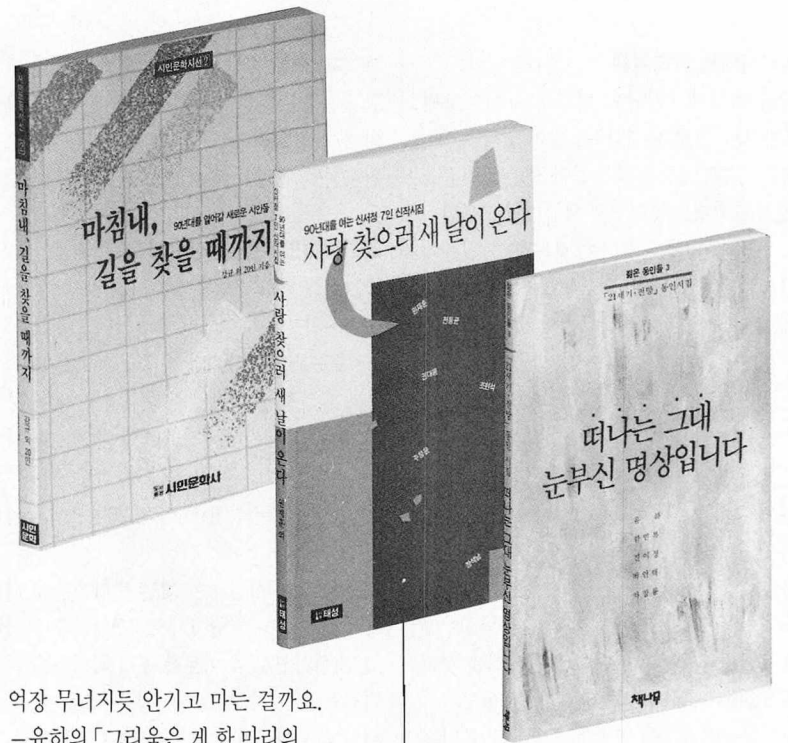
시인은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의 시세계를 마감했고, 또 한 시인은 너무 빠르게 우상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90년대의 진정한 시적 징후는 무엇인가? 나는 세권의 젊은 시인들의 앤솔로지를 읽는다. 그것들은, 1) 우리는 늘 '열려 있을 것'이다! - 「떠나는 그대 눈부신 명상입니다」(책나무, 1990) 2) 다만 우리는 이 작업이 어떤 범주에 '묶여지기를 원치 않는다' - 「사랑 찾으러 새 날이 온다」(태성, 1990년) 3) 90년대적 위상으로서의 시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시적 기반인가 아니면 퇴조인가? - 「마침내, 길을 찾을 때까지」(시문문학사, 1990년) 등이다. 이 세권의 앤솔로지에는 30여명의 젊은 시인들의 '다양하게' '열린' 시세계들이 펼쳐져 있다. 그 시편들은 한번만 훑어보아도 80년대 시인들의 시편들과는 '다른 무엇이' 분명히 감지된다. 그 다른 무엇이 무엇인가? 2)의 책에 의하면, 그것은 '새로운 서정의 움직임'이다. 또 그것은 '변화하는 삶의 양식에 대한 시적인 대응'으로부터 비롯된다.

나는 90년대가 80년대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획득한 연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도 80년대적 혼란과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나날의 삶은 변함없이 고달프고, 우리 삶의 내면 속에서 불거져 나오는 상처와 결핍의 흔적들은 여전히 삶에 대한 비관주의적 인식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90년대는 80년대의 특수한 상황논리들을 천천히 희석시키면서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다! 시인들은 그 변화의 기미들을 온몸으로 선취하여 사는 자들이다! 이들 젊은 시인들의 시가 보여주는 탈이념화 · 탈중심화의 가속, 그리고 새로운 낙관주의는, 실천과 해체 이후의, 90년대 시인들만의 독자적인 다양성과 열림의 확실한 징후이다.

시대에 대한 '부채의식' 사라져

끝 간 데 없는 갯벌 위를 걷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하기만 합니다. 문득 손뚱만한 게 한 마리 휘 내 앞을 지나갑니다. 어쩐지 그 게 한 마리의 걸음마가 바닷물을 기다리는 갯벌의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그 마음 그토록 허허롭고 고요하기에 푸른 물살, 온통 그 품에



억장 무너지듯 안기고 마는 걸까요.
-유하의 「그리움은 게 한 마리의 걸음마처럼」

일하다 문득 올려다 본 하늘의 구름
구름은 지금 일을 하고 있나
구름의 일은 흘러가는 것 머물지 않고 죽어가는 것
그럼 나의 일은

나의 일은 구름을 가끔 쳐다보는 것
소리치고 싶을 때, 떠나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고
집 짓는 일, 지어서 머무는 일
겨우겨우 일하면서 사는 일, 가끔씩은 노래 하면서
구름을 올려다 보는 것
-원재훈의 「구름의 일」

유하와 원재훈은 90년대 신서정의 한 흐름을 열어갈 만한 재능을 가진 시인들처럼 보인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80년대 시인들의 상상력 속에서는 시대에 대한 도덕적 원죄의식이 발견된다. 그 원죄의식 때문에 그들의 시는 고통에 대한 과장, 비극의 상투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때로 성급한 시인들의 시에서는 삶의 구체적 진실은 증발해버리고 공허하게 높고 경직된 분노의 언어만 흥한 골조처럼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유하와 원재훈에게서는 그런 부채의식이 없다. 그들

의, 세계와 자아의 관계는 불필요한 불화나 긴장 속에 놓여져 있지 않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그들의 신서정이 솟아난다. 그들의 시선은 텅빈 갯벌 위를 기어가는 게 한 마리의 발걸음이나, 하늘을 무심히 흘러가는 구름에 가 닿는다. 자연의 미세한 기미를 포착하여 내면화해 낸다. 그 내면화는, 이념의 무조건적 · 강박 관념적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정체성에 대한 탐색의 한 징후이다. 이들 시편에서는 자연에 대한 가벼운 소묘와 같은 터치, 들뜸이 없는 어조의 차분함, 내면의 고요한 응시가 돋보인다.

꿈꾸는 일이 결코 삶이 되지 않는 이곳
나는 더러워지기 시작했다.
-정끝별의 「꿈의 세탁장」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나는 저 새매들이 나를 메고 어디론가 가리라는 것을 안다
저 햇빛 속인데도 캄캄한 세월 넘어서
자기 울음 가파른 어느 기슭엔가로
데리고 가리라는 것을
-장석남의 「새매들에게로의 망명」

정끝별은 '좌우로 돌아가는 광포한 거품 한가운데' 공포와 뒤섞여 표백되고 탈락되는

**90년대는 80년대의 특수한
상황논리들을 천천히 회색시키면서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다.
젊은 시인들은 그 변화의 기미들을
온몸으로 선취하며 산다.
그들의 시가 보여주는
탈이념화 · 탈중심화의 가속과
새로운 낙관주의는, 실천과 해체 이후의,
90년대 시인들만의 독자적인 다양성과
열림의 확실한 징후이다.**

꿈을 주목한다. 그는 자신의 삶이 꿈을 배반하는 현실의 진흙탕 속에 '발을 빠뜨린 것'을 눈치챈다. 그때 삶은 더러워지기 시작한다. 정결벌의 시적 자아는 현실에 대한 객관주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을 거부하고, 그것과 끝까지 싸우는 적극적 대응이 아니라 '혼신의 꿈꾸기'에 매달리는 소극적 대응에 머물고 만다. 장석남의 새폐들에 의해 어디론가 떠나가는 꿈을 꾸는 현실일탈 상상력 역시 정결벌의 상상력과 유사한 체계이다. 그것은 낭만주의자의 현실인식과 그 맥락이 닿아 있다.

무지개는 안개 저편에 있는 것이다.
나는 자꾸 주저하면서
블라인드를 내리거나 탁상일지를 뒤적였다.
약속도 없이 거리를 나설 때면
험악한 자동차와 낮은 노을 사이에
어느새 돌아갈 곳도 없이 홀로 서 있게 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늙은 선생의 교과서
힘없는 노래들이 더이상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지를
-류환의 「마침내, 길을 찾을 때까지」
자아 시간이 없어 춤을 춰야 해
아, 춤 날 미치게 해요
부루스를 함께 춰주렴 시간이 없어
자정이 지나면 누구든 덤배대지요
-강규의 「종파티」

류환의 시적 자아가 보여주는 세계에 대한

압도적인 불신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그는 '돌아갈 곳도 없이 홀로 서 있'지만 '늙은 선생의 교과서'나 '힘없는 노래들'이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해석할 수 없는 난해한 이 세계'(「짜라투스트라 시피타마」) 속에서 안개 저편에 있는 '무지개', 혹은 길찾기는 개체적 자아의 논리로 수렴된다. 강규가 보여주는 자기방기적 몰입도 90년대 시인들의 현실 응전의 한 방법처럼 보인다. 때로 춤은 그들을 미치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속에 '육신 거리는 뜨끈한 통증 속 내 빈곤한 사랑 조금씩 끓고 있다는 것을'(「염」) 안다. 이 자기 환부에 대한 투명한 응시와 자기방기적 몰입 사이엔 적절한 긴장이 유지되고 있다. 이들 세대의 경쾌한 언어는 한사코 무거운 것을 해체해버리는 정신의 가벼움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는 있다

80년대 시인들은 그들이 몸담아 살았던 시대로부터 '병든 유곽', 혹은 '초토'와 같은 이미지를 이끌어 냈다. 90년대 시인들은 그들의 시대에 어떤 이미지를 부여할 것인가? 그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시인들이 진정한 다양성과 열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열어 보이지 못하는, 80년대의 민중과 해체 경향의 구태의연한 답습, 새로움의 징후와는 무관한 불필요한 언어학대, 존재론적 성찰의 심연에 도달하지 못하는 추상적 진술에 의 함몰...과 같은 것. 아직 속단은 이르다. 그들은 가능성의 영역에 속해 있다.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기형도 · 송찬호 이후의 한국시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글을 맺도록 하자.

「떠나는 그대...」-유하 · 함민복 · 진이정 · 박인택 · 차창룡.
「사랑 찾으러...」-원재훈 · 전동균 · 권대웅 · 조현석 · 주창윤 · 정끝별 · 장석남.
「마침내, 길을...」-강규 · 강세환 · 김상윤 · 김용길 · 류환 · 박현호 · 백태중 · 송용호 · 송계홍 · 양선희 · 원재훈 · 유강희 · 유하 · 윤제림 · 이윤학 · 이종희 · 정끝별 · 정한용 · 조은 · 조현석 · 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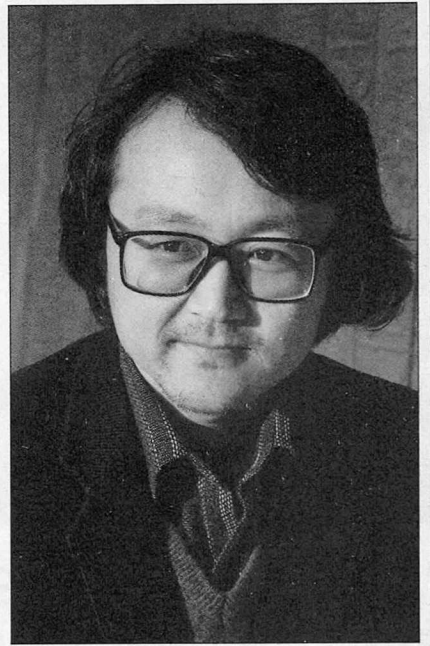
작품구상

의미없는 글쓰기

「끝내 제목을 찾지 못한 이야기」

박인홍
소설가

두어해 전부터 나는 글장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배운 도둑질이라던가, 어쨌든 글장사는 계속할 수밖에 없다. 삶과 치욕은, 내게 있어 같은 말이다.



4316년 말부터 글장사를 했으니, 날 수로 따져 벌써 6년이 넘도록 글판에서 굴러다니고 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여기저기에 팔아먹었던 글들을 모아 폐지몽치도 한권 내놓았다(한권으로 묶으며 약간의 손질을 했다고는 하지만, 같은 물건을 두번 팔아먹는 이런 장사가 세상에 또 있을까?). 6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니, 이제 뭘 좀 알아야 할텐데, 도무지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아니, 그동안의 경험으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글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시나 소설, 평론 따위가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힐까? 천만에! 시나 소설, 평론 따위가 없어져서 세상이 뒤집힐 수 있는 거라면 이 끔찍한 세상을 뒤집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모조리 없애버려야겠지만, 그것들이 있다고 해서 배고픈 이웃에게 쌀 한톨 생기는 것 없다. 민중이니, 해체니, 서정이니 해가며 끼리끼리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것은 대답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오만한 여왕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애타게 사랑을 호소하는 거지의 자위행위, 또는 그런 거지들끼리 서로 마스터ベーション을 해주는 것이 글판의 꼬라지라면, 그렇게 해서 손에 문헌 몇 방울의 배설물이 문학작품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팔아먹는 것은 매춘보다 훨씬 저열한 짓거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원고청탁을 받고도 한동안 몽기적거리다가 어거지로 쓴 것이 「再遣魚를 먹으면 가위에 눌리지도 않을 뿐더러 흥한 일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 우리 모두 再遣魚를 잡아먹으러

가자」였고, 이 글은 「문학정신」 금년 1월호에 실렸다. 제목만 있으면 되는 이 글이 200자 원고지로 160장 가까이나 썩어진 것은, 우선 제목만 있는 소설은 있을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법을 어길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이었으며, 또 하나는 잡지에서 소설을 살 때 그 값을 원고의 양에 따라 계산해 주기 때문이었다(글 값이 원고량에 비례한다는 법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법이다).

어쨌거나 그 글이 발표된 이후에 내게 들려온 말들 가운데에는 "박인홍이가 앞으로는 글을 쓰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있었다. 왜 안 그렇겠는가? 가까운 친구들에게 얘기를 했다가 욕을 먹기는 했지만, 사실 두어 해 전부터 나는 더 이상 글장사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에게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글이라도 팔아먹지 않고는 몇푼 안되는 담배값이나만 만들 재주가 없는 것이다. 배운 도둑질이라던가? 그러므로 글장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

요즈음 쓰고 있는 「끝내 제목을 찾지 못한 이야기」는 「염유어.....」와 같은 글이다. 내가 글값을 받는다는 사실외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손이 쓰는대로 쓰는, 입을 필요가 없는 글이라는 점에서. 이 글은 계간지 여름호에 발표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글을 몇편 더 써야 되는데, 이유는 어떤 출판사에서 책 한 권을 달라고 나에게 선금을 주었으며, 나는 '어찌되든 우선.....'하며 그돈을 받아 잘 날렸기 때문이다.

문학이 하다못해 밀 댄는 휴지만큼의 가치라도 있는 것이라고 속일 능력이 나에게게는 없다.
삶과 치욕은, 나에게 있어서는, 같은 말이다.